

# “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 한승원씨 ‘아제아제...’ 3권으로 개작

‘아제아제 바라아제(가자 가자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한승원씨는 장편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끝을 해탈을 향한 진언으로 마무리했다. 이것은 생사고해(生死苦海)를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염원하는 생의 목표이기도 하다. 중생들은 자신이 처한 세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화두를 부여받고 더 높은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두 비구니의 대조적이면서 고심찰달한 삶의 행각을 통해 인간의 깨달음을 향한 구도를 규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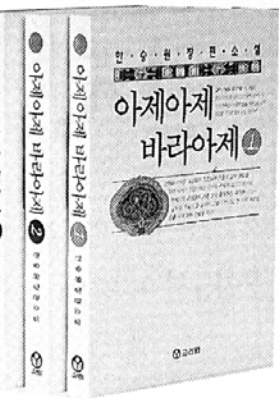
영화로도 상영되어 유명해진 불교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저자 한승원씨가 3권으로 개작해 내놓았다. 이 작품은 서로 상반된 처

지에 놓여진 두 비구니가 자신에게 주어진 화두를 붙들고 깨달음이라는 절대 경지를 향해 걷는 험난한 구도 역정이 중심축이다. 선재동자처럼 끊임없이 정진하며 초월의 길로 참상이 무엇인가 찾아나서는 진성스님과 세상도처에 부처가 있다

어려 불가에 귀의한 은선스님의 제자들이다. 은선스님은 진성과 순녀에게 각기 다른 화두를 준다. 진성스님에게 주어진 화두는 ‘달마스님처럼 끊임없이 정진하며 초월의 길로 참상이 무엇인가 찾아나서는 진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난



세를 떠도는 너의 등신 가운데 진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순녀에게 주어진 화두. 순녀의 환속은 깨달음의 근원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구원의 통로를 세사의 체계를 통해 찾아내려는 것이다. 그는 도처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도, 자기의 몸종이도 도량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계율을 파하고 속세로 나와 온몸을 던져 장애인학교를 설립한 의지력으로 흥행과 육신을 받아들일때 거기에는 깨달음에 필적하는 적선의 성취감이 있고 이것이 비록 세속의 풍파를 딛고 이론 일이라 해도 불법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



는 공덕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전혀 상반된 삶을 살지만 두 비구니는 오랜 방황속에서 결국 빛과 생명의 방황을 떠난 삶의 구경(究竟)을 탐색해 나가는 자기정화의 노력이 곧 정도라는 깨달음으로 만나게 된다.

작가 한승원씨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소설의 주인공들과 함께 살아왔다. 나와 우주, 선과 악, 부처와 중생, 즐거움과 괴로움이 결국은 하나라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 “상반된 삶 사는 두 비구니 자기정화 노력 통해 정도 만나”

고 믿으며 맨몸으로 중생들의 아픈 삶을 같이 겪으며 사는 환속한 비구니 이순녀의 구도역정이 빛과 어둠처럼 대조적으로 펼쳐지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진리를 일깨워 준다.

진성과 순녀, 이 두 사람은 괴란 많은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적

감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진성은 세상을 널리 떠돌면서 참상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며 수행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참자유를 얻는다면 달마의 얼굴에 수염이 있고 없고는 궁극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산에 남아있는 너의 혼령과 속

우리나라 근대조소예술계의 선구자로서 최근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장관 김복진(1901~1940)이 서구사상이 밀려들어오는 근대초기 개척자적 미학사상을 불상예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 깊은 불심을 지닌 선구적 작가였다고 밝힌 논문이 나왔다. 한국최초의 조각가며 미술인으로는 유일하게 독립운동가였던 김복진은 한때의 좌익행적과 유종작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그동안 소외돼 왔었다.

윤범모교수(경원대 회화과)가 <아제아제연구 제1집>에 게재한 논문 ‘김복진 불상예술의 세계’에 따르면 김복진은 근대적



◇ 김복진씨의 대표작 불상작품인 금산사 미륵전 본존불(가운데 불상).

## “근대조각 선구자 故김복진씨 불상세계 재평가 하자”

### 한때 출가... 깊은 불심서 나온 예술혼 표출

#### 윤범모교수 논문발표

조형감과 전통미술과의 조화로 운 함입을 꾀해 20세기 불교예술의 신경지를 개척한 조소예술가로 젊은 시절부터 불교를 자신의 정신적 사상으로 삼았다는 것. 윤 교수는 “1940년 김복진의 추도식에서 읽은 훈원 이광수의 조사내 용중 ‘같이 중생살을 한 동자가 한사람이었다는 말이며 또 동경 유 학시대에 어느 절에서 독도하였던 말이...’에 의거하면 동경유학시절 한때 승려생활을 한적이 있을 을 알 수 있다”면서 “불교사상이 그의 예술관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 깊은 불심의 바탕에서 다수의 불상이 창작되었다”고 설명한다. 또 금산사미륵전 본존상과 소림원불상 등 현존작품과 법주사 시멘트 대량불상(철거됐음)이 전부 미륵상인 것을 볼때 암묵적인 일제시대 김복진은 미륵의 조형적 구원을 통해 민족의 유토피아를 예시하려 했고 이는 민족의 주체성 제고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윤범모교수는 “김복진은 불교가 요구하는 도상학 즉 32상 80종 호를 충실히 지키면서 옷주름이 나 전체적 곡선에서 유려한 율동감을 강조하는 등 자신의 창의성을 가미했다”고 극찬했다. <속>

## 문화소식

### 중광스님 童心展

#### 9일까지 대구동아전시관

파격적인 실험성으로 널리 알려진 중광스님(62)의 ‘童心展(童心展)’이 오는 9일까지 대구 동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목화 1백여점 도자기 20여점 유화 20여점 등 총 1백4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중광스님전시회 최대 규모인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대부분 파격의 미학으로 곧장 본질에 도달하려는 실험성과 어린이의 마음같은 천진 동심이 배어있다. (053)251-2111

### 안경수씨 창작가곡집

#### ‘연꽃만나고 가는...’ 펴내

#### 안경수씨(관음사 관세음합창단

## 뜰앞에 잣나무

### 19일 우송예술회관

정통불교연극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뜰앞에 잣나무’(원 답스님 작 김태수 연출)본지 제98호 9면 참조)가 오는 19일 대전에서 공연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전 충남지부가 주최하고 예강 기획(대표 이종운)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19일 하루 우송예술회관에서 오후 3시·7시 30분 두차례 공연돼 대전 충남지역 불자들에게 불교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대전 공연

극단 원자무늬에 의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공연되어 ‘연극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는 극찬을 받은 ‘뜰앞에 잣나무’는 현대한국불교사의 최대 미스터리 10·27법난으로 인해 피폐된 한 가정을 배경으로 종교와 권력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역사의 인연고리를 풀어 본 불교극.

축복은 인물 설정과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대사가 돋보여 관객들에게 자아찾기에 대한 힘 있는 화두를 던져준다.

관람문의(042)221-1994

지휘자·시진)가 그동안 작곡한 창작가곡을 모아 ‘연꽃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제목의 가곡집을 펴냈다.

제주도내 중견작가들의 제주를 상징하는 향토색 짙은 시에 안씨가 곡을 붙인 이 가곡집에는 ‘천왕사’ ‘관덕정’ ‘관음계곡’ ‘영실’ ‘이여도’ 등 불심을 바탕으로 한 가곡 12곡이 들어 있다.

3회 서울판화미술제 예술의 전당, 7~15일까지

제3회 서울판화미술제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판화미술진흥회가 주최하는 이번 미술제에는 60여

곳의 화랑과 공방 관련업체들을 통한 180명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또한 ‘중국 목각관화의 흐름전’ ‘벨트 96 선정작가전’ 등의 특별전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수천씨 設經 초대전 공주민속박물관, 5월말까지

공주민속박물관(관장 심우성)은 오는 5월 31일까지 박수천 법사의 설경(設經)초대전을 갖는다.

설경이란 창호지에 신령 보살의 모습과 부적 꽃무늬 등을 오려서 만든 것으로 주사를 섞은 붉은 물감으로 신령의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넣어 만든 것이다. 박수천법사는 3대째 이어오는 설경전승자로서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무늬와 그림처럼 섬세한 철망등 설경 4백여점이 선보인다.

## 불심시심 <79>

### 허정도인 살게 하네

靑山綠水萬重餘 (청산녹수만중여)	푸른 산 푸른 물, 일만겹 거둬거둬
中有蕭然一草廬 (중유蕭然一草廬)	그 중에 있는 소연한 초가집 한 채
淨世風塵飛不到 (淨世風塵飛不到)	날아들 수 없는 뜬세상 먼지 구름
天教虛靜道人居 (天教虛靜道人居)	하늘이 날 시켜 허정도인 살라 하네 (천교허정도인거)

이 시도 허정대사의 시이다. 제향산상운암(題香山上雲庵)이라 한 시이니, 묘향산의 상운암에서 지은 시이다. 암자를 두고 지은 시이지만 암자의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이 암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주인공을 말하려는 것이다.

자연을 설명함에 있어서 푸른 산 푸른 물이라 하면 일단 대자연은 포용되어 버린다. 여기서도 첫 구절을 푸른 산과 푸른 물로 흥기시키고 있다. 이 자체가 이미 깊은 산으로 인식되게 한다. 그러하건만 여기에서 일만의 거듭됨으로 깊이를 더 다지고 있으니 이런 배경으로 설정되는 공간은 쓸쓸하다 함이 자연스레 이어지는 것이다. 이 시의 소연함이란 표현도 시인의 의도적 구성이라기 보다는 그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초가집이라 함은 인위적 구성물이라는 하지만 그 자체마저도 자연스레 이 산천구조와 어울리는 한 쪽의 수채화 같은 소박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 구로 이어질 주인공을 허정의 비고 조용한 공간으로 유도할 복선일 수도 있다. 이 시를 감상하는 독자에게도 어느 사이 깊숙한 청산녹수로 끌려들게 하고 있다.

침착한 산수 중에 점 하나로 찍힐 것 같은 이 조그만 암자, 여기에 바깥세상의 풍진이 들리가 없다.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산사이다. 이러한 암자의 주인공이 바로 작자이니 이것이 아무리 주인공의 선택에 의한 거처라 하더라도 자의적 선택이기는 아니다. 하늘이 이미 예정해 두었던 것이 틀림없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사는 이의 이름이 허정이다. 글자 그대로 비고 고요한 허정의 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미 나를 위하여 이러한 공간을 유지했고, 이렇게 유지되는 자연을 작자인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스님들의 무아를 다시 음미할 수가 있으며 그 자체가 바로 대상도 여의도 나도 여의는 해탈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이 시는 상운암이라는 암자를 읊은 것이기는 하지만, 암자의 소묘라기 보다는 이 암자에 사는 도인의 해탈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자료라 하겠다. 하늘이 허정도인을 살게 하였다는 표현은 자연을 자신의 것으로 독점하는 작자의 오만감기도 하지않고, 그것은 오만아 아닌 자연 앞에 숙연한 작자의 겸손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시는 이런 면에서 자연과 암자, 암자와 주인공이 하나가 된 좋은 어울림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충청·전라 문화유적 CD롬 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

송광사 법주사 미륵사지 등 충청·전라도의 전통사찰과 문화유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CD롬이 제작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최근 1천2백여 개의 불교 유적을 포함한 총 1만2천여점의 충청·전라도의 문화유적을 담은 <전국문화유적총람> CD롬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유적에 대한 해설과 3천6백여 장의 관련 칼라사진, 6백7십여장의 분포지도 등이 담겨진 이 CD롬은 유적의 종류·시대별 색인을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고 빠르게 유적을 찾을 수 있다. 또 컴퓨터 화면에 출력된 문자·사진·분포지도 등의 정보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고 편집·저장·인쇄 등도 가능하다. 문화재연구소는 강원·경상도의 문화유적을 수록한 CD롬 3집을 연말까지 펴내고 오는 98년에는 북한의 문화유적을 포함한 전국 문화유적 종합편을 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의 진리로 온 책들...

## 살아 있는 선(禪)

— 오쇼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답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쇼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

### 42장경

북다의 42장경을 한쪽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통찰. 재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권 삶의 해면에서 오온 조약물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동봉로 삼이라 / 440쪽. 황광우·이경숙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 말없는 자의 말 (양양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과와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생애 미지와 명상록. 이경숙·황광우 옮김 / 176쪽 / 값 4,800원

TEL : 778-6826-7 FAX : 778-6828 **성야출판**